



보 도 자 료

(담당자 : 디지털금융팀 김규리 대리,
02-769-6864)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프앤가이드, B2C 사업 잔걸음...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취득

- 개인투자자 맞춤 전략 승부수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B2C(기업 대 고객) 사업 확대에 나선다.

에프앤가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는 B2C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초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국가공인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또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AI 엔진 개발, 기업간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쉽게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다. 에프앤가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함으로써, 개인의 동의를 거쳐 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대의 금융정보와 다양한 지수를 기반으로 20여년간 누적된 노하우에 AI를 결합하여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위험 분석 △금융상품 테마 맞춤 검색 △스몰캡 집중 분석 △AI를 통한 뉴스분석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방안

을 제시하고, 투자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투자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